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어제, 오늘, 내일

최혁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1. 서론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고비에 직면할 때마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힘없는 다수의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위기를 넘기고 또 성장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희생되었고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한 카드남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다. 서민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비정규직으로 내몰아서 가파스로 거대기업들을 살리고 시장기능을 유지시켜낸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부양책으로 감세와 고환율정책을 선택하여 거대기업들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 한국사회에서 소시민들은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냉철하게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한국사회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보다 제 살 깎아내기 식으로 그것도 이 사회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밑바닥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몰며 겨우겨우 위기를 봉합해왔던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으로 전 세계는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몇 가지 겉으로 드러난 경제지표에 근거하여 한국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지표상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우리 사회가 어떤 근원적인 변혁이 없이는 도저히 지속 불가능한 소위 임계점, 대전환의 시점(Turning point)에 아주 가까이 도달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이유는 또다시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한다면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희생시킬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빈곤층이 800만에 도달하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비자발적 비정규직이고 대형 유통자본의 공격적인 시장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노인은 늘어나고 젊은 세대는 아이 낳기를 거부한다. 아마도 여기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강제된다면 한국사회는 걸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타인의 희생 위에 존립하던 낡은 방식의 자본주의’는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일정기간 동안은 갈수록 점점 더 주기가

짧아지는 반복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단기처방의 임기응변으로 현재의 사회 시스템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이상 희생시킬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러한 자기 파괴적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이미 세계는 새로운 가치와 사회경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형태들이 보수나 진보 양진영 모두에서 다양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새로운 혁신적 조직들이 표방하는 가치가 지난 200년 동안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해온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소셜 비즈니스 등 소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물론 정부의 공적지원에 의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대안에 대한 모색이라는 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의 강력한 힘과 자본집중화, 그에 따른 거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사업확장은 커뮤니티 차원의 작은 경제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는 고용불안과 실업문제, 빈곤의 확산, 공적 시스템의 약화, 지역공동체의 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경우만 놓고 보면 분명 우리사회의 절박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또한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공적지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민간의 자생적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을 충분하게 축적하고 있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사회적기업도 그 뿌리에는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 전통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자발적인 협동의 힘과 민주적인 소통으로 해결해온 보편적인 경험과 전통이 부재하다. 오직 경쟁과 효율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해왔던 사회에서 영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을 그리고 지배와 명령이 아닌 민주적 소통을 우선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대중에 대한 일종의 변형된 폭력으로 느껴지곤 한다.

그렇기에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원주는 참으로 소중한 공간이다. 원주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선배들은 이미 40년 전부터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준비해왔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과 지학순 주교님 그리고 함께 했던 수많은 선배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에 힘입어 오늘 원주는 낡은 것이 지나간 이후의 새로운 사회에 대하여 감히 꿈꿀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 글은 그러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축적되어온 역사적 과정들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의 경험들이 공유되는 것은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이후 시민력(市民力)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운동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선배들이 물려준 이러한 잠재력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이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산재해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그 해법에 대해서도 이글의 하반부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원주가 배우고자 했던 다른 나라의 경험들도 이글에서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필경 원주의 협동조합운동도 그 자체로 독자적인 것은 아니며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다양한 경험들로부터 항상 배우고 재해석한 가운데 창조되어 온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몇몇 지역의 경험들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에 대한 소개는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다.

낡은 것은 허물어져가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것은 도래하지 않았다. 타인의 희생에 기반하여 성장해온 경제시스템은 이제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음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시대는 새로운 길을 요구하고 있다. 밤사이 쌓인 눈 위로 첫발자국을 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이다. 신새벽에 눈길을 따라 첫걸음 내걸는 사람들에게 원주의 경험들은 분명 참고할 만한 소중한 좌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원주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

### 1. 원주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 배경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은 지학순 주교님과 장일순 선생님 두 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도에 힘입어 시작되었다. 1965년 지학순 주교님이 가톨릭 원주교구 초대교구장으로 부임하였다. 지학순 주교님은 로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년~1965년)가 열리던 시절 유학생으로 로마에 머물면서 공의회 정신으로 온몸으로 체득하신 분이였다. 원주교구장으로 부임하자 곧바로 공의회 정신에 따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자립을 위한 실천적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당시 척박하기만 하였던 강원도 원주 일원에서 주교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사회운동을 이끌어 나갈 만큼 인품과 역량을 고루 갖춘 주민지도자를 찾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변에 수소문하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을 추천하였고 지학순 주교님도 장일순 선생님의 인품에 반하여 사회정의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고 한다. 이 무렵 장일순 선생님은 사회대중당이란

진보정당 후보로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였던 이력과 또 중립화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였던 탓에 수년간 옥고를 치르고 계속되는 정부기관의 감시 하에 아무런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의 보호막 아래에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해보자는 지학순 주교님의 제안은 장 선생님에게는 가뭇의 단비와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두 분의 만남은 곧바로 지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1967년 지 주교님이 설립한 진광학교 내에 협동교육연구원이 설립되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협동조합교육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신용협동조합을 조직하는 일에 집중하였는데 당시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절박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은행문턱으로 인하여 사채와 고리채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내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원주교구 내 영월, 정선, 태백 등지의 광산지역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만성적인 체불임금과 일상화된 노동착취구조로 인하여 광산노동자들의 경제사정은 매우 열악하였다. 게다가 인생막장이란 체념의식으로 인하여 술과 노름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고 미래를 위해 현실 사회를 변혁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들의 자립과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위해선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초기부터 협동교육연구원을 설립하여 경제사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교육운동을 병행한 것은 이후 원주 협동조합운동이 대단히 활성화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는 신용협동조합운동이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돈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 철학에 따른 것이었다. 교통편이 매우 좋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탄광지역의 광부들까지 매주 원주로 와서 협동운동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 리더들이 생겨났고 이들이 농촌에서 광산촌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협동조합운동과 농민운동, 노동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던 시절이라 협동조합의 자본금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어렵게 만들어진 최초의 신탁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지학순 주교님의 후원과 장일순 선생님의 지도 하에 설립된 신탁에서 총무를 맡은 사람이 출자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조합원들이 원성이 높았지만 장일순 선생님이 사재를 털어 갚아주어 주민들은 지도부를 신뢰하게 되었고 다시 협동조합운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새삼 협동조합운동에 있어 초창기에 헌신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례이다.

1972년 발생한 남한강 대홍수는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에 대단히 커다란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엄청난 수해로 강원남부 지역의 농산어촌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학순 주교님은 독일의 원조기금을 확보하여 천주교 원주교구 산하에 재해대책 사업위원회를 설립하게 된다. 이 때 만들어진 재해대책 사업위원회는 이후 원주교구 사회개발위원회로 그 비전과 미션을 확대하게 되는데 주로 협동조합의 가치와 철학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역재건 및 지역사회개발운동을 펼쳐나갔다.

사회개발위원회의 지역사회운동에는 전국 각지에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지닌 수많은 청년그룹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참여로 70년대 원주는 협동조합운동의 도시이자 동시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성지로서도 부각되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본래 민주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적 가치와 실천은 반드시 사회혁신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원주지역에서 협동조합운동이 성장하는 가운데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은 어찌보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끊임없는 정치적 탄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협동운동의 지도부에 있던 분들이 많은 곤경을 겪기도 했지만 대중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에 기반한 원주의 협동운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강원남부 지역에는 한 때 무려 68개의 신탁과 181개의 협동공동체가 건립되어 운영되는 큰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정부의 공적지원에 힘입어 사회적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을 활성화하려는 사회적 흐름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한 신(新)사회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은 생각처럼 일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곤 한다. 원주지역에서 1970년대 사회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주민의 협동공동체 조직을 건설했던 과정과 경험들을 상세히 살펴본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 2. 시련과 한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장해오던 원주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의 산업체제가 변모하면서 석탄산업이 몰락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떠나면서 광산지역의 협동공동체 운동도 급속도로 쇠락하게 된 것이다. 농촌 지역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국가차원에서 수출 위주로 대도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을 강하게 펼쳐나가면서 농촌지역 인구도 급속하게 줄게 되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7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원주의 협동운동 지도자들을 다시 강하게 억압하려 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도시로 떠나자 협동공동체도 점차로 문을 닫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원주의 협동운동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였다. 연수단을 파견하여 일본생협들의 모습을 시찰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다양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원주의 협동운동은 대도시 소비자와 현재 몰락해가고 있는 농촌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도시소비자와 농민이 서로 협동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상호 간의 생활과 생명을 보장하는 새로운 협동운동, 바로 한살림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한살림운동의 시작은 원주의 협동운동이 전국화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한편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 데에는 원주지역이 가진 소비시장 만으로는 농업공동체들과 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자리하고 있었다. 한살림운동을 계기로 원주의 협동운동은 점차적으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는 긍정적 성과를 보이게 되는데 반면 원주지역 차원에서는 운동의 지도자들이 원주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기존의 협동조직들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차원 이상의 새로운 혁신과 도전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특히 90년대 들어와 지학순 주교님과 장일순 선생님 돌아가신 뒤로는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라는 큰 그림에 기초한 협동운동의 모습은 점차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97년 구제금융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충격은 새로운 협동운동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성찰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주었다. 당장에 신탁조직들이 소상공인들의 급속한 몰락으로 위기에 봉착하였다. 손실이 늘어나고 그로인해 경영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지역의 일부 신탁들은 문을 닫거나 인근 신탁과 통폐합되었다. 주민들이 겪게 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높은 금리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었고 빚은 산더미처럼 늘어났다. 안타까운 것은 지역사회가 처한 위기 앞에서 협동조합들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시대는 급속하게 변화하였다. 글로벌 자본주의 광풍이 원주라는 작은 지역에도 몰아치기 시작하였고 실업과 빈곤문제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어 도저히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역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지역의 작은 경제들은 지켜내지 못하면 협동조합운동도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자본주의 환경은 개별 협동조합의 대응체계 만으로는 맞서기 어렵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거대하게 집중화된 자본에 맞서려면 우리도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했다. 협동조합의 원칙에 기초한 민주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 3.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창립

오랜 논의 끝에 2003년 드디어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에 출범하였다. 모두 8개 협동조직들이 참여하였는데 전통적인 협동조합부터 의료생협처럼 새로운 협동조합 그리고 자활이나 실업빈곤운동 조직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거창하게 시작하였지만 막상 협의회가 출범하자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각 조직의 사업과 운영체계,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에 많은 차이가 있었고 지난 수년간 친분관계 이상의 교류를 진행해본 적이 없어 소위 협동조직간 협동의 필요조차 느끼고 있지 못한 수준이었다.

간혹 사소한 문제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협의회는 대표자 회의와 실무책임자 회의(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구성원들 간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고자 일본과의 국제교류사업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비용상의 문제로 여러 차례 국제교류연수활동이 중단될 위기도 있었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던 분들이 개인적 후원까지 해주신 덕에 꾸준히 진행될 수 있었고 현재는 각 조직의 핵심사업이 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0여년 동안의 국제교류연수활동은 지역사회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된 분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각 단체의 조합원 간 공감대를 넓혀나가고자 공동신문 <원주에 사는 즐거움>를 발행하였다. 발행 초기에는 일부 단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몇몇 활동가들이 사비를 들여 수년간 발행하기도 하였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문이 발행되자 서서히 그 영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였다. 서로 다른 조직의 조합원들이 서로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업홍보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매월 1회 발행되는 공동신문 <원주에 사는 즐거움>은 현재 많은 구독자들로부터 인정받은 원주협동조합운동의 공식 기관지가 되었다.

협의회가 창립하고 수년의 세월이 흐르자 조금씩 단체 간의 협동사업들이 시도되기에 이르렀다. 몇몇 단체들이 협력하여 가공사업을 추진해본다거나 복지사업에 도전하기도 하였다. 부분적으로는 실패하기도 하였지만 협동조직간의 협동이 보다 확산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들이 만들어 질 것이란 자신감을 얻는 계기도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사회에도 사회적기업을 합법화하는 제도가 머지않아 도입될 것이란 소식이 들려왔고 이는 원주지역 협동운동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부여해 주었다. 성공회 나눔의집과 원주의료생협이 우선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면서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보자는 분위기를 주도해나갔다. 그러면서 새로운 협동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회

원단체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활동도 강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로 공공급식을 전환하자는 학교급식조례운동, 친환경농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으며 화상경마장의 지역설치를 막아냈다. 유전자조작에 반대하고 안전한 농업을 확산하자는 시민적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은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게 되어 지역의 청년들이 협동조합운동에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찌보면 이러한 활동은 협동조합의 경영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은 자신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 보다 민주적이며 투명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은 협동조합의 성장에 대단히 중요하며 또한 협동조합에 우호적인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해선 안되는 문제이다.

#### 4.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의 전환

2009년에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는 조직의 명칭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전환하였다. 지역 내에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제도상의 협동조합들만 참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라는 차원을 보다 넓게 수용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법이 시행되고 난 후 원주지역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수가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제 회원단체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제휴되어 있다.

얼마 전 ‘(주) 친환경급식 맞두레’ 라는 명칭으로 법인 창립을 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학교급식 조례운동을 성공시킨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러 협동조합단체들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사회적기업이다. 법 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주식회사라는 상법상의 회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노동자들과 각 협동조합 단체들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전형적인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다. 성공회 나눔의집에서 인큐베이팅한 사회적기업 ‘(유) 햇살나눔’ 도 노동자협동조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원주한살림생협의 협력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처럼 협동조직 간 협동의 확대되면서 그 사이에 여러 사회적기업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라는 보다 포괄적인 그릇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현재 참가하는 조직도 17개 단체로 늘어났으며 각 단체에 참여하는 회원 수는 대략 3만 1천 세대 정도로 파악된다. 그리고 새로 가입을 준비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있어 올 연말이면 모두 20개 단체 정도가 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사업의 영역도 확장되었으며 사회적경제라는 보다 큰 틀에서의 고민들이 생겨나면서 이에 대한 비전과 가치의 재정립이라는 현실적 욕구도 자리하게 되었다.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들, 가치들 그리고 원칙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현실적으로 조직역량과 경영능력도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연수의 활동도 보다 확대하였다. 그동안 일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동의 경험들을 배워왔다면 현재는 유럽이나 북미지역의 협동조합운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영감을 얻게 되었다.

특히 2010년 하반기부터 네트워크의 청년그룹들이 주축이 되어 미래에 대한 다양한 토론들을 주제별로 진행하고 이러한 논의를 하나로 모아 지난 3월 19일 지역차원의 심포지움을 개최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무려 25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였고 각 주제별 의제토론을 거쳐 원주지역의 22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상호부조협약을 체결하였다. 비전과 가치를 공감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실천전략까지도 서로 협력하여 수립한 것이니 원주협동운동이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고 감히 말하여도 무관할 것이다.

지나온 역사를 긍정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한 냉철한 비판적 성찰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교훈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시켜 내는 것이 지금 원주의 협동운동에 주어진 과제이다. 청년그룹들은 이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원주협동운동의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시대가 부여한 새로운 과제에 대하여 기꺼이 새로운 도전으로 응대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Ⅲ. 결론 - 반성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일부에서는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원주만의 특수한 것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만일 원주만의 특수한 사례라면 한국사회의 타 지역에서는 좀처럼 시도되기 어려운 특별한 사례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이 그 초창기부터 국제적인 협동조합운동의 흐름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일정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 글을 통해 강조하고 싶다. 실제로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은 1960년대 말부터 국제적인 협동조합운동의 다양한 경험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으로 접근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의 결론부에서는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이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어 성장해왔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던 원인은 무엇인지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자 하며 동시에 그러한 과정에서 이 글의 목적의 하나인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사실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은 아래에서 비교군으로 거론한 지역들과 사상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연관요소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드러난 모습으로 이들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이 지역들과 비교해서 원주의 협동운동을 바라보는 것은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울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하게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 몬드라곤, 트렌토, 퀘백 그리고 원주

원주 사회적경제 운동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 이탈리아의 트렌토 협동조합연맹, 캐나다 퀘백의 거버넌스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운동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된 해당 지역들이 원주의 협동조합운동과 매우 유사한 전통과 뿌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지역들은 모두 가톨릭 사회운동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운동을 발전시켜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의 창시자는 돈 호세마리아 신부이다. 그는 하느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인간들이 비인간적인 처우와 일상적인 착취구조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동자들을 위한 협동조합을 구상하였다. OECD가 주목하고 있는 이탈리아 트렌토 협동조합운동도 지역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가톨릭 사제였던 돈 로렌조 신부에 의하여 지도되었다. 캐나다 퀘백의 협동조합운동도 그 뿌리는 가톨릭 사회운동에 있다. 지역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톨릭 사제들이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다양한 공제조직과 안티고니쉬 운동에 기초한 신용협동조합 조직을 만들어 낸 것이 오늘날 퀘백 협동조합운동의 뿌리가 된 것이다. 원주의 경우도 천주교 원주교구에 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가톨릭 사회운동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을 확산시켜왔다는 점에서 이와 다르지 않다.

두 번째로 위 네 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은 모두 특정한 개별 협동조합의 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협동조합의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 즉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목표로 하였다는 점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의 경우 최초에는 난로를 생산하는 작은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바스크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수백개의 다양한 협동조합 조직들의 연맹체로 발전하였다. 트렌토의

경우도 농업분야와 신용협동조합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소비, 유통, 가공, 생산, 복지,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들로 발전하여 지역 차원의 연맹체로 강력하게 연대하고 있다. 퀘백의 경우도 신용협동조합들이 성장하면서 타 협동조직들을 위한 투자기금 등을 조성하여 지원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다양한 그물망이 구축되어 있고 여기에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방정부까지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원주지역의 경우도 초기부터 단일 협동조합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강원 남부지역 전역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상호간 협력체계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운동이 진행되어왔다.

세 번째로 네 지역 모두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정치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이다. 몬드라곤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역에 위치하여 근세기 지속적인 정치적 탄압을 겪어왔으며 그로 인해 아주 빈곤한 지역으로서 지역자원은 빈약하였다. 트렌토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아 빈곤문제가 심각하였고 파시즘 정부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던 역사가 있다. 퀘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탄압은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미국의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다. 원주 역시 군부독재 시절에 지속적인 정치적 탄압으로 고초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사상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단 겉으로 드러난 외용만을 살펴보면 원주와 나머지 세 지역은 상당한 격차를 확인하게 된다. 1956년 시작된 몬드라곤 협동조합운동은 현재 270개 협동조합의 연맹체가 되었고 연간 매출액만 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화물자동차를 생산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EU에서 벤츠에 버금가는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다. 트렌토 연맹의 경우도 인구 50만 지역에 협동조합 수만 540개에 이르고 매출규모는 3조 6천억원이라고 한다. 협동조합들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어섰다. 게다가 협동조합들은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서 가장 좋은 노동조건과 임금, 복지제도를 실현하였다. 퀘백의 협동조합들이 만들어낸 사회연대 시스템도 대단한 성과이다. 일단 900만 인구 가운데 협동조합에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분이 830만이라고 하고 협동조합 수는 3만 2천개에 이른다.

물론 현실적으로 각각의 지역이 정치사회적, 역사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과 그것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격차가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오늘 원주지역의 사회적경제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대단한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원주와 나머지 지역의 격차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우선 금융기반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자체적인 금융기반을 마련해왔다. 몬드라곤에는 협동조합들을 위한 신탁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1960년대 말 아직 노동자협동조합들이 경영적으로 많은 곤경을 겪고 있던 시절이었지만 호세 마리아 신부는 협동조합들을 위한 협동조합은행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일반은행이 협동조합 조직들의 성장에 필요한 안정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때 만들어진 소위 협동조합을 위한 신탁은 오늘날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가 가능하게 된 가장 강력한 실체적 힘이라 할 수 있다. 트렌토 연맹의 경우도 지역사회 전체 금융의 60% 이상을 신탁 조직들이 관리하면서 지역 협동조합들의 성장을 강력하게 지지해내고 있다. 퀘백의 경우는 신탁조직들이 만든 데잘딩 사회투자기금, 노동조합들의 연기금(약 8조원), 지방정부의 투자기금, 민간 NPO 장기투자기금 등이 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현재 원주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금융기반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관련 조직들은 매년 수매자금 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공분야나 제조업처럼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회적경제 영역은 좀처럼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강력한 연대체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로 협동조합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운동의 성장에 있어 연맹(MCC)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연맹은 각 조직의 경영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이나 금융분야 등 개별 협동조합이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를 책임지고 지방정부와의 협력 등 행정분야 그리고 회원조직의 위기관리에 있어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트렌토 연맹의 역할도 이와 유사하며 각 회원조합들은 매출의 3%를 연맹에 지불하여 연맹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론 연맹의 활동은 그 이상의 매출 증대로 회원조직에게 돌아가고 있다. 퀘백의 경우도 소지역별, 광역별 그리고 업종별로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로서 상티에 같은 조직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의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위 지역들에 비하면 대단히 느슨한 연대체에 머물고 있다. 사실 협동조합이 성장하려면 조직 내부의 건강성 외에도 제도적 환경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망들이 협동조합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치, 사회, 문화, 교육적인 차원에서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사회적경제는 뿌리내리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 세 지역처럼 현재의 네트워

크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네트워크는 각 조직의 경제적 필요를 해결하여 경영적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금융, 교육, 컨설팅, 상호부조, 물류교류, 거버넌스 등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원주지역의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각 회원단체들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강력한 지지기반이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자본주의가 확산되고 극단적인 이윤추구와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오직 지역 차원의 강력한 연대체를 이룬 협동조합들만이 경영적 성공과 자신의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세 번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민주경영에 기초한 강력한 협동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세 지역의 협동조합들은 노동자와 이용자, 지역사회 내의 지지자, 기관출자자, 협동조합 연구자 모두에게 점차로 경영을 개방해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1980년대 레이드로 박사가 말하였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협동조합들, 협동조합운동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그러한 협동조합의 전형들을 실현해온 것이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에게 조합원 자격과 이사회 참여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로 인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협동경영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대폭 개선되었는데 신빈곤 시대에 이러한 실천은 지역사회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다. 노동자들은 모두 조합원들의 가족이기에 그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된 것은 당연히 조합원들로부터 지지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져 오늘날 영리기업들을 압도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몬드라곤이나 트렌토 협동조합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물론 그 배경에는 1대6 또는 1대3의 임금원칙이 자리하고 있다. 몬드라곤의 경우 최고경영자와 최저임금 수령자의 임금격차를 평균 1대 6 정도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트렌토는 1대 3의 원칙을 지난 백년간 고수해왔다. 이들은 재벌은 없지만 모두가 풍요로운 지역사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원주지역은 아직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해관계자가 모두 함께 하는 협동경영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변화가 국제 협동조합 조직을 통해 진행되어 온 지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계는 1970년대에 머물고 있다. 우리 안의 노동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없다. 원주에서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던 1970년대에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협동조합이 어떠한 노동을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사라졌다. 우리는 협동조합 운동이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도시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될 것이다. 그것을 잊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뿌리인 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몰락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민주적인 협동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대단히 강

력한 경영조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에는 영리기업들조차 협동조합의 가치를 받아들이며 경영혁신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주식회사들은 이사회 30% 범위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수직적인 명령체계를 거부하고 자율경영체계를 도입하였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협동조합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버리고 이미 영리기업들조차도 벗어버린 옷들을 주워 입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실현가능한 실천적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자존감있는 노동을 창조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조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취업시키고 싶은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경영원리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구체적인 연구와 작업들이 이 시간부터 실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운동의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치환경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탈리아 트렌토의 협동조합운동과 퀘벡 사회적경제 운동이 지금처럼 풍성해진 이면에는 삶의 전 영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시민들에 의해 자유롭게 설립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 정책을 주도하면서 지방정부를 견인해내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가와의 죽음의 키스라는 소위 정부지원에 의해 종속되는 길을 피하고 협동조합운동의 역량을 연대체를 통해 강화시켜내면서 오히려 역으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정부를 새롭게 견인해내는 혁신적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사회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없는 관계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운동이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원주지역에서도 여러 유형의 사회적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외형적으로는 상법상 회사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직까지 설립자들의 정신에 의해 협동조합적 운영을 지향하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사유화되고 협동조합적 성격이 퇴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며 현재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운동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원주시의 경우 사회적경제 운동의 오랜 역사적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지 않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구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을 지방정부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변화시켜내는 노력을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최

종적 목표는 시민들 누구나가 안전하고 안심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통해서만 실현가능하다. 보다 넓고 포용력 있는 자세로 우리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변환경을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에 대신하여 몬드라곤, 트렌토, 퀘백의 사회적경제 운동과 비교하여 본 원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해 원주지역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식도 제시해보았다. 실제로 현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내부에서는 어떻게 금융기반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보다 건강하고 힘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고민들이 토론되고 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미래는 아마도 이러한 자기반성과 성찰의 과정들이 공유되고 토론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운동의 방식도 변화하겠지만 아마도 원주협동조합운동이 지켜온 가장 근원적 가치와 전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장일순 선생님이 말씀하였던 개문유하(開門流下) 즉 문을 활짝 열고 아래로 흐른다는 그 정신이다.

#### <참고문헌>

- 김영주 2009년, 무위당 좁쌀 만인계 창간준비 3호
- 2011년, 원주사회적경제블록화사업 심포지움 자료집
- 김익록 2010년,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시골생활 출판사
- 나카타니 이와오 2009년,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기파랑 출판사
- 함께 일하는 재단 2008, 2009 해외연수 보고서, 함께 일하는 재단 출판